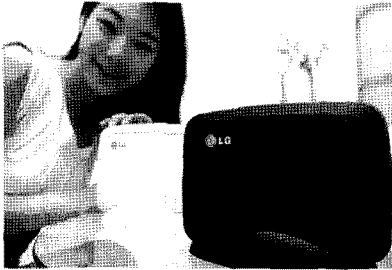


LG전자 세련된 디자인의 외장하드 'XG1 Chic' 출시



LG전자가 12월 24일 세련된 디자인의 3.5인치 외장하드디스크드라이브 XG1 Chic(시크)를 출시했다.

'XG1 Chic'는 기존 3.5인치 가정용/사무용 외장하드와는 달리 모서리 부분을 부드러운 곡면으로 처리했다. 또 앞면에 동작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은은한 LED 램프를 탑재해 노트북, 데스크톱은 물론 TV와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앞면과 뒷면에 '에어홀(Air Hole)' 설계를 채택해 외부의 이물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제품 작동시 발생한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한다. 또 제품 내부에 팬(Fan)을 없애 소음도 대폭 줄였다.

'SATA II' 방식을 사용해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및 전력 소모 최소화가 가능하다.

이밖에 충격 테스트 포함 15가지 이상의 품질테스트로 제품 신뢰도를 높였고,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인증과 전자파 적합 인증(KCC)도 획득했다.

LG전자는 제품과 별도로 세우거나 눕혀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제공하며, 백업 및 복원 프로그램도 기본 제공한다.

검정색과 흰색 2가지 색상의 이 제품은 1TB(테라바이트) 용량으로 가격은 14만원대다. 금년 1월 1.5TB, 2TB 제품이 추가 출시 예정이다.

LG전자 RMC사업부 이인규 상무는, "최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사용이 많아지며 외장하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LG전자는 다양한 2.5인치 및 3.5인치 외장하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급증하는 외장하드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캔디폰'으로 韓日 여성 노인다



LG전자가 한국과 일본 젊은 여성고객을 위한 솜사탕 느낌의 파스텔 색상을 적용한 '캔디폰'을 출시했다.

LG전자는 '캔디폰(모델명:LG-SU410)'을 23일부터 SKT 전용으로 판매하며, 가격은 40만원대 후반이다.

'캔디폰'은 흰색, 분홍색 2종의 색상, 반짝이는 물방울 모양의 키패드, 폴더 외부 붉은색 LED 조명 등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2.8인치 LCD 화면을 통해 지상파 DMB 감상이 편리하며,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검정/노란색 2종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16기가바이트(GB)까지 저장 가능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등 실용적 기능도 갖췄다.

또 모션인식 무음기능을 적용, 공공장소나 회의중 벨이 울리는 경우 폴더를 뒤집으면 무음모드로 자동 변환된다.

한편, LG전자는 일본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일본판 '캔디폰'(모델명:L-02B)을 출시했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도코모 스타일' 시리즈의 하나로, NTT도코모를 통해 판매된다.

청순한 이미지로 일본 젊은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여배우 '아오이 유우(蒼井優)'가 출연한 광고도 화제가 되고 있다.

LG전자 MC(Mobile Communications)한국사업부 조성하 부사장은 "사랑스러운 색상과 디자인의 '캔디폰'이 한국과 일본의 젊은 여성고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라며 "디자인 뿐 아니라 실용적인 기능까지 겸비해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KEC, LG이노텍과 LED Foundry 계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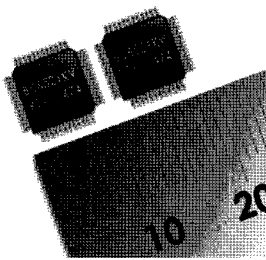
국내최대 개별반도체 업체인 KEC(대표:곽정소)는 12월 8일 LG 이노텍과 LED Foundry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KEC 관계자는 “금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KEC는 LED 산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향후 3년간 50만매를 LG 이노텍에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금번 계약을 계기로 향후 LED 관련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KEC 그룹은 당초 계획된 현금 창출 작업을 연내에 순조롭게 마무리지어 12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데 이어 미래 핵심 성장 산업인 LED 부분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기존 사업 부분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규성장 사업 LINE UP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로움코리아

업계 최초 안개 화상 보정(Fog reduction) 기능 내장 비디오 엔코더 IC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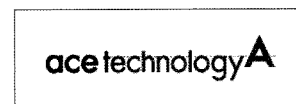
반도체 메이커 로움 주식회사 (본사 : 교토)는 이번에 감시 카메라 및 가정용 보안기기, 자동차의 드라이브 레코더 등의 카메라 모듈 탑재기용으로 안개 화상 처리 기능을 업계 최초로 탑재한 비

디오 엔코더 IC “BU6521KV”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신제품은 2009년 9월부터 샘플 출하 (샘플 가격 1200엔 / 개)를 개시하였으며, 2009년 12월부터 월 10만개의 생산 체제로 양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생산 거점으로는 전공정을 로움 주식회사 본사 (교토), 후공정을 ROHM ELECTRONICS PHILIPPINES,INC. (필리핀)에서 실시합니다.

보안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는 오늘날, 감시 카메라 분야 및 자동차 카메라 분야 등, 특히 옥외에서의 높은 시인성을 필요

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기상 등의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상 보정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움에서는 기존의 각종 화상 포맷에 대응하는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서 및 TV 엔코더 등 폭넓은 제품군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역광이나 야간과 같은 어두운 환경하에서 카메라 화상의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AIE (Adaptive Image Enhancer : 로움의 독자적인 하드웨어 화상 보정 기술) 내장 비디오 엔코더 IC “BU6520KV”로 감시 카메라, 자동차 카메라 등에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BU6520KV”에 안개 등으로 인해 선명하지 않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안개 화상 보정 기능을 추가한 비디오 엔코더 IC “BU6521KV”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에이스안테나 모바일안테나기술, 2009 대한민국기술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에이스안테나(대표이사 오정근, 박용순)는 12월 1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

텔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자사의 저가격/광대역 휴대폰용 내장형 안테나 기술이 대한민국기술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에게 수여된다. 에이스안테나의 저가격/광대역 휴대폰용 내장형 안테나 기술은 혁신성이 돋보이는 우수 신기술로 선정되어 금번 2009 대한민국기술대상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휴대폰안테나는 휴대폰의 전파 송수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휴대폰의 심미적, 초경량 추세에 따라 단말기에 내장되는 형태로 설계되고 있다. 기존 내장형안테나의 경우, GSM과 WCDMA를 포함한 5중 대역 안테나 구현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별도 회로를 추가하는 대역 스위치(Switch)

방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안테나 단가 상승은 안테나 제조업체들의 공통적인 고심거리였다.

에이스안테나는 이에 착안하여 별도의 회로 없이도 5중 대역폭 이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안테나 설계기술을 개발, 가격을 50% 수준으로 개선하였고, 나아가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 차폐기능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2년여의 기술 개발단계에서 이미 10여 개에 달하는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고, 금번 2009 대한민국기술대상에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에이스안테나 오정근 대표는 “휴대폰 디바이스 산업은 치열한 가격경쟁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한된 공간에서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지닌 안테나 신기술들이 필요해 질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러한 신기술 개발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스안테나의 저가격/광대역 휴대폰용 내장형 안테나 기술은 세계 굴지의 휴대폰 제조업체의 기술 및 양산검증을 완료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금영, 업계 최초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금영은 2007년 일본의 대표적인 가라오케 유통회사인 BMB사와 수출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14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올해 결산에선 이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일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올해 무역의 날엔 업계최초로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회사측은 이같은 결과가 중 국산 저가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일본의 문화와 생활습관,

시장상황을 철저히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노래반주기에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했다. 네트워크 반주기는 인터넷에 연동해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반주기의 20% 정도가 네트워크 반주기이지만 일본은 대다수가 이같은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노래방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끼리 노래 대결을 하는 ‘온라인 노래방 파티’ 게임 프로그램, ‘슬롯머신’으로 과거 노래를 연대기 형식으로 검색하는 ‘롤렛 검색’ 등이 일본에 수출한 제품에 내장됐다.

특히 로그인을 하면 어느 노래방에서든지 자신이 부른 노래를 기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기록’을 좋아하는 일본인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다고 한다.

금영은 현재 지경부가 주관하는 10억 규모의 개발 지원비로 일본 가라오케 유통 회사인 BMB 사와 영상 반주기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반주기에 네트워크 게임이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내장하는 등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현재 내수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금영은 내년에 새로운 반주기 라인업 출시와 더불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일본뿐 아니라 브라질, 동남아, 인도 등 다양한 지역로의 수출을 모색해 글로벌 1위 반주기 업체로 거듭난다는 목표이다.

삼성디지털이미징, 24배 광학줌 하이엔드 디지털카메라 출시



삼성디지털이미징이 26mm 광각 24배 광학 줌, 풀 메뉴얼 모드, RAW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 하이엔드 디지털카메

라 WB5000을 출시한다.

신제품 WB5000은 24배 고성능 광학줌 슈나이더 렌즈와

1,250만 화소, 듀얼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갖추고 고감도 ISO 6400까지 지원해,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진과 720p HD급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고사양 제품이다.

노출이나 측광, 색 온도, 셔터속도, 초점 영역 등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풀 매뉴얼 모드'와 RAW 파일 포맷을 지원하여 DSLR에서 가능한 전문가급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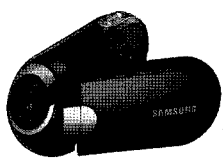
한 손에 잡히는 안정적인 그림감과 메탈과 클래식의 조화로운 디자인이 더욱 돋보이는 하이엔드 디지털카메라 WB5000은 스마트 다이얼을 채용해 복잡한 메뉴를 누르지 않고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기존 삼성 컴팩트 카메라에 적용된 혁신적인 사용편의성도 모두 적용되어 아마추어에서 전문가급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야경, 접사 등 11가지 장면을 스스로 인식해 촬영하는 '스마트 오토', 자주 찍는 얼굴을 기억해 먼저 인식하는 '스마트 얼굴 인식', 포토샵 처리를 한 것처럼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해 주는 '뷰티샷', 사진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앨범' 등을 갖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완벽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삼성디지털이미징 황충현 상무는 "WB5000은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도 최고 사양만을 집약시킨 결정판으로, 컴팩트 카메라의 편의성과 24배 광학줌의 고사양으로 모든 계층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한 제품"이라며,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 WB5000을 출시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카메라 시장 선두 입지를 보다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캠코더 디자인 파워, 세계에서 인정받다



삼성 캠코더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권위있는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파워를 세계서 인정받았다.

25도 기울어진 렌즈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초소

형 포켓 UCC캠코더(SMX-C10)와 음료수 캔 크기 초고화질 캠코더(HMX-R10), 세계 최초 64GB SSD 캠코더(HMX-H106)가 프랑스 산업 디자인상서 '최고 혁신 디자인상'과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초소형 포켓 UCC 캠코더 'SMX-C10'은 프랑스 산업 디자인 진흥원(ACPI, Agency for the promotion of industrial creation)이 주관하는 디자인 어워드(Observateur du design Award)에서 1,500여개 출품작 중 '최고 혁신 디자인상(Most innovative design products)'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삼성 캠코더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일본에서도 통했다.

일본 산업 디자인 진흥원(JIDPO, 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굿 디자인 어워드 2009'에서도 'SMX-C10'과 'HMX-R10'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혁신성이 높이 평가되었다.

음료수 캔 크기의 초경량 풀HD 캠코더 'HMX-R10'은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편리함이 소비자를 만족시킨 것이 주효했다.

풀HD 캠코더 'HMX-H106'도 캠코더 업계에서 유일하게 손잡이가 180도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스위블 핸드그립(Swivel Handgrip)'으로로우 앵글로 촬영 시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세계 최초로 대용량 64GB SSD를 적용해 '2009년 CES 혁신상'을 수상했던 'HMX-H106'은 대용량 SSD를 저장장치로 사용해 빠른 부팅속도와 데이터 안정성이 장점이고 장시간 촬영해도 걱정없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디자인연구소장 김영준 상무는 "25도 기울어진 렌즈와 180도 회전 손잡이 등 소비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혁신을 결심한 것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에는 소비자를 고려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캠코더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